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충북 청주 송어 양식어가 방문

- 히트펌프 등 고수온 대응장비 적극 동원을 통한 피해 저감 당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1일(화) 충청북도 청주시 송어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에 따른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고수온을 걱정하는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고수온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응장비 현황 등 철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충북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내수면 양식장의 지하용수 수온이 높아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며, “내수면 어업인들께서는 히트펌프, 액화산소, 수차 등 고수온 대응장비를 총동원해 피해를 막고, 사육 밀도 및 사료 급이 조절 등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어촌양식정책관	책임자	과 장	도윤정 (051-773-5630)
		담당자	서기관	장석준 (051-773-5637)
	양식산업과		사무관	최은석 (051-773-5684)
			주무관	김미정 (051-773-5638)